

6월 광고경기 전월 대비 호전 전망



6월 국내 광고경기는 5월 대비 호전될 전망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이후 KOBACO)는 국내 251개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경기예측지수(KAI)를 조사한 결과 6월 예측지수가 110.4를 기록, 전매체의 광고비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별 광고경기예측지수(KAI)는 10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초과는 전체 광고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는 광고비 감소가 예측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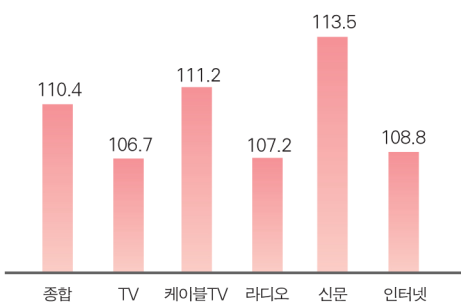
이 같은 결과는 소셜커머스업종 광고의 지속적인 증가와, 스낵, 제과, 유제품의 가격 인상에 따른 광고활동 증가, 또 통신, 생활용품의 호황 및 공기업, 지자체 등의 광고비 호황이 예상되는 데 기인한 것이라고 KOBACO 측은 설명했다. 한편 아웃도어, 유통업종은 강세가 유지될 것이며, 그 동안 침체를 보였던 부동산업종에서의 일부 회복 조짐이 광고경기의 호전을 예상케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별로는 TV(106.7), 케이블(111.2), 라디오(107.2), 신문(113.5), 인터넷(108.8)로 조사되었으며, 업종별로는 가정용품(160.9), 관공서 및 단체(156.7), 컴퓨터 및 정보통신(151.6) 업종에서 강세를 나타낸 반면, 화장품 및 보건용품(62.5), 패션(73.8), 수송기기(74.8) 업종에서는 약세가 전망되었다.

광고경기예측지수조사(KAI: Korea Advertising Index)는 방송광고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광고매체의 경기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광고산업 경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매월 KOBACO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한편 광고경기예측지수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지난 4월 초 안드로이드폰을 시작으로 5월에는 아이폰에서도 KAI 어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KAI' 혹은 '광고경기'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지수는 매월 10일경 업데이트 된다. **KAI**

〈표 1〉 매체별 광고경기 전망



〈표 2〉 업종별 광고경기 전망

